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와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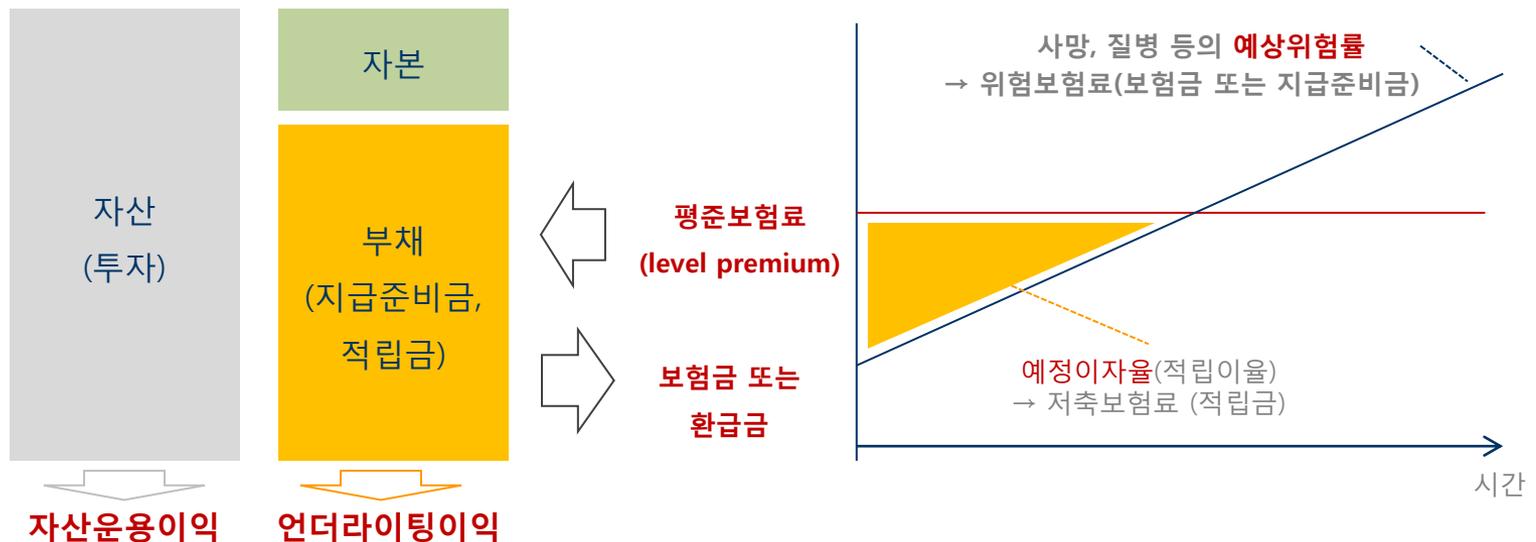
2014. 2.12

김해식

* 이 연구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1. 서론

-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언더라이팅과 자산운용능력
 - 보험위험과 투자위험 인수로 이윤창출과 지속성장 유지
- 장기 부채를 조달하여 중·단기 자산에 투자
 - 장기간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 결정 능력 : 위험률과 이자율



1.1. 금융당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

➤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7) - 2013년 경쟁력 강화 방안 구체화 - 2013년 강화 방안 : 경쟁과 혁신, 실물과 연계, 안정적 재산보호

가격(보험료)자유화

1. 위험률 안전할증 확대 : 30% → 50%
2.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 10% → 20%
* 2013년 금리연동형상품의 공시이율 조정범위 축소 조치 환원
3.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 준비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이율의 시장금리 연동 증대

자본규제(RBC) 강화

1. RBC 기준 강화
2. IFRS 부채(준비금) 시가평가 대응
3. 위험경감수단 제공

소비자 신뢰 제고

1.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2. 보험사기 및 불공정 보상행위 관련 규제 강화
3. 소비자 상품공시, 상품이해도 평가, 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
4. 판매채널 다변화 : 온라인수퍼마켓,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12.31), 이태열 외(2014)

가격자유화 보완 대책

- 1.1. 위험률차익 정산제도 - 유배당 개념 적용?
- 1.2. 유배당상품 활성화
 - 2.1. 저축성상품의 환급률 100% 시점 단축
* 시점 단축으로 사업비 인하 효과

1.2. 규제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보험료 (위험률과 이자율) 자율결정 폭 확대, 새 판매채널 도입
 - 준비금 및 자본, 영업행위 규제·감독 강화

- 2000년대 이후 감독 방향은 “소비자 보호” (이순재·김재현, 2014)
 - 규제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이슈들이 있음

(가격자유화) 경쟁제한 고려 부족과 행정지도 잔존 (이승준, 2014)

(준비금/자본) 규제 마련의 불투명성 개선 (김홍범,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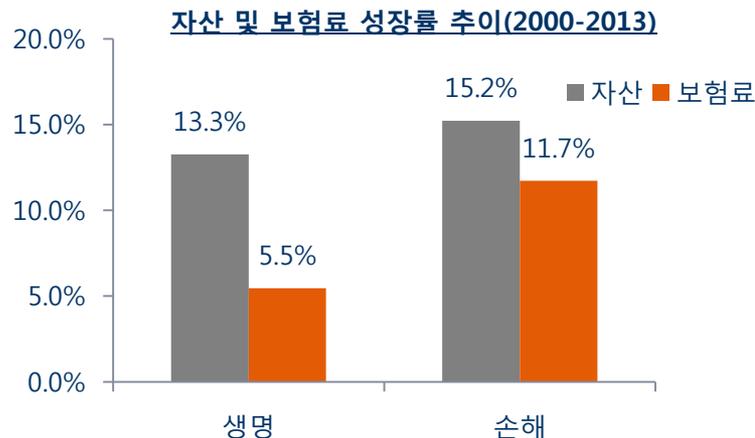
(소비자 신뢰) 시장 선입견과 규제의 역기능 완화 (이태열, 2014)

2. 보험산업은 위기?

- 자산과 보험료의 꾸준한 성장과 일정 수준의 이윤 창출
 - ROA : 생명 0.5%, 손해 1.2%
 - 보험료성장률 : 생명 5.5%, 손해 11.7%

2014.3 (조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	609.2	176.9
자본	50.7	22.7
자본비율	8.3%	12.8%

2013.4~2014.3	보험료수익	당기순이익
기중자산	자산회전율	ROA
기중자본	자본회전율	ROE
	당기순이익 / 보험료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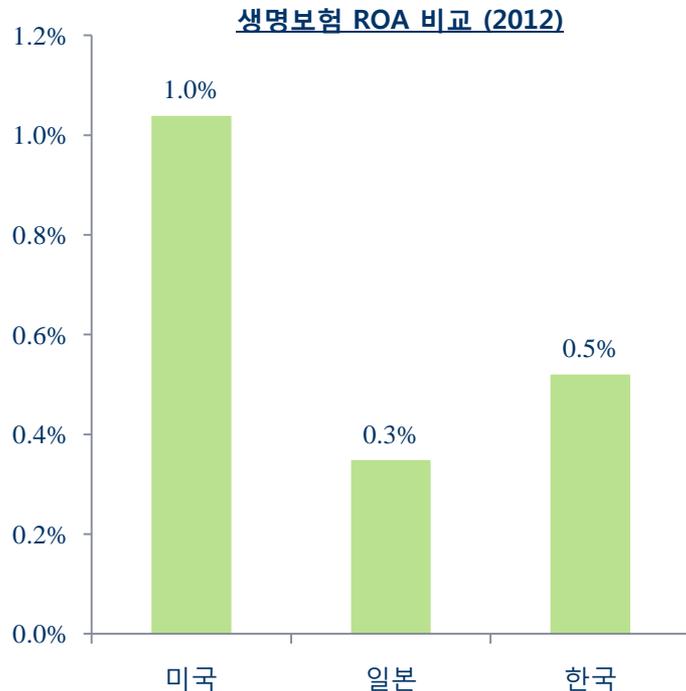
생명보험	102.9	3.0
자산	17.5%	0.5%
자본	195.6%	5.7%
영업이익률	2.9%	

손해보험	75.2	2.1
자산	43.3%	1.2%
자본	333.5%	9.3%
영업이익률	2.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2.1. 수익성 해외 비교

-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
 - 2009년 글로벌 Top 10 보험회사의 평균 ROA는 생명 0.6%, 손해 1.4%



자료 : Kim(2013)

2013.4~2014.3	보험료수익	당기순이익
기중자산	자산회전율	ROA
기중자본	자본회전율	ROE
	당기순이익 / 보험료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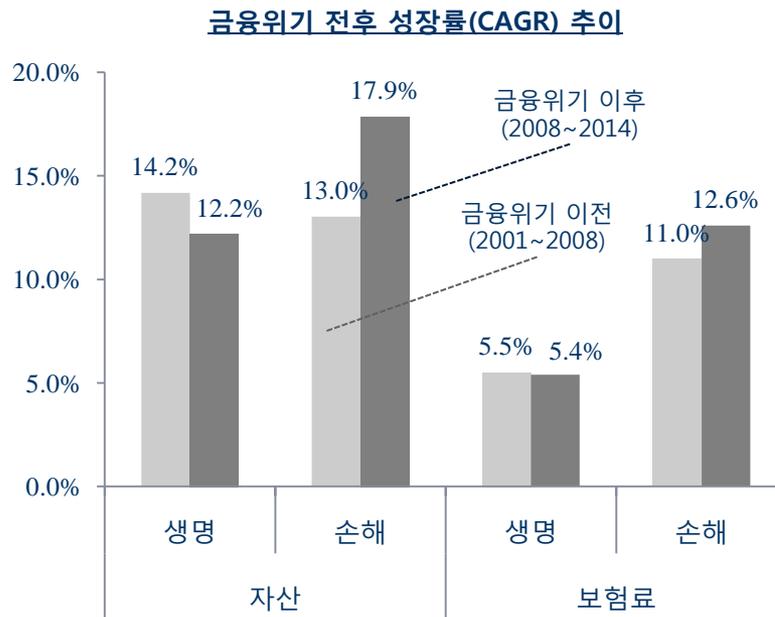
생명보험	102.9	3.0
자산	17.5%	0.5%
자본	195.6%	5.7%
영업이익률	2.9%	

손해보험	75.2	2.1
자산	43.3%	1.2%
자본	333.5%	9.3%
영업이익률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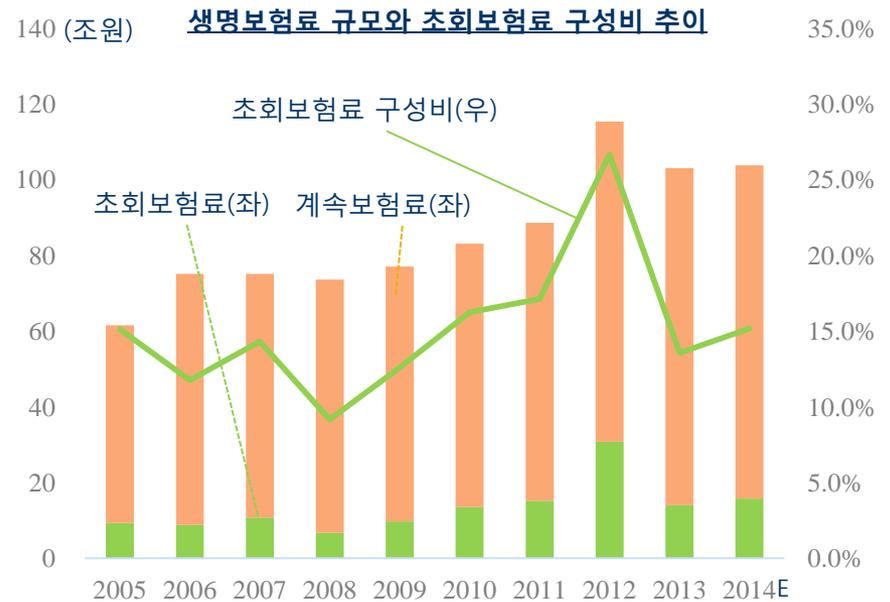
2.2. 성장성 둔화

➤ 생명보험의 초회보험료 성장 정체

- 2000년대 종신보험, 변액보험이 생명보험 성장동력
-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에 의존하여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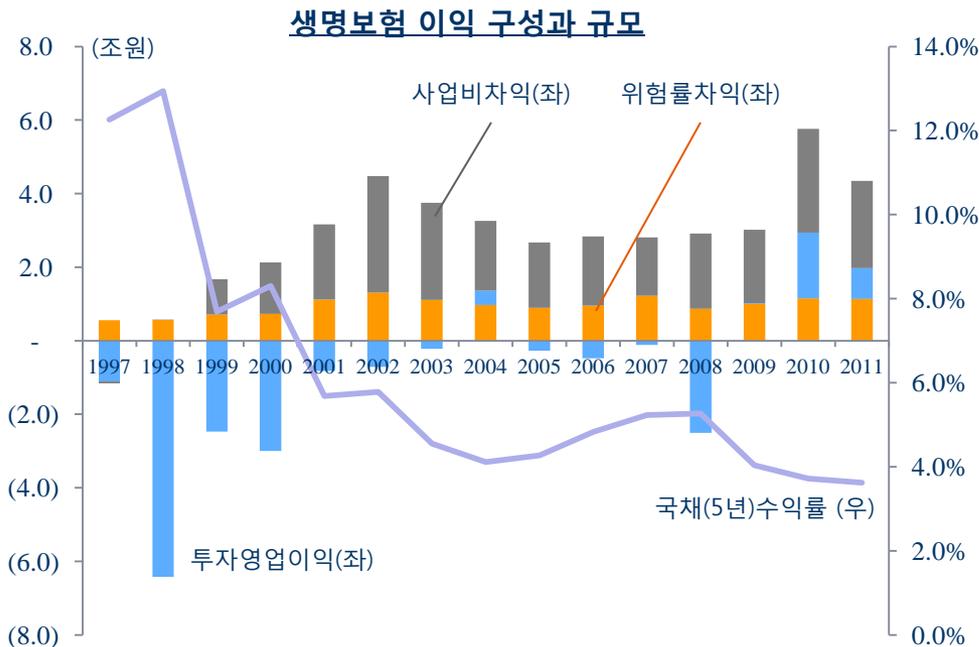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주 : 2012년 세제 개편 영향

2.3. 이익 구조의 취약성

-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차익의 지속가능성에 의문
 - 2000년대 이후 사업비차익이 이차역마진의 주요 보전수단으로 등장
 - 그러나 신계약 위주 영업 유인과 낮은 해지환급금으로 규제 압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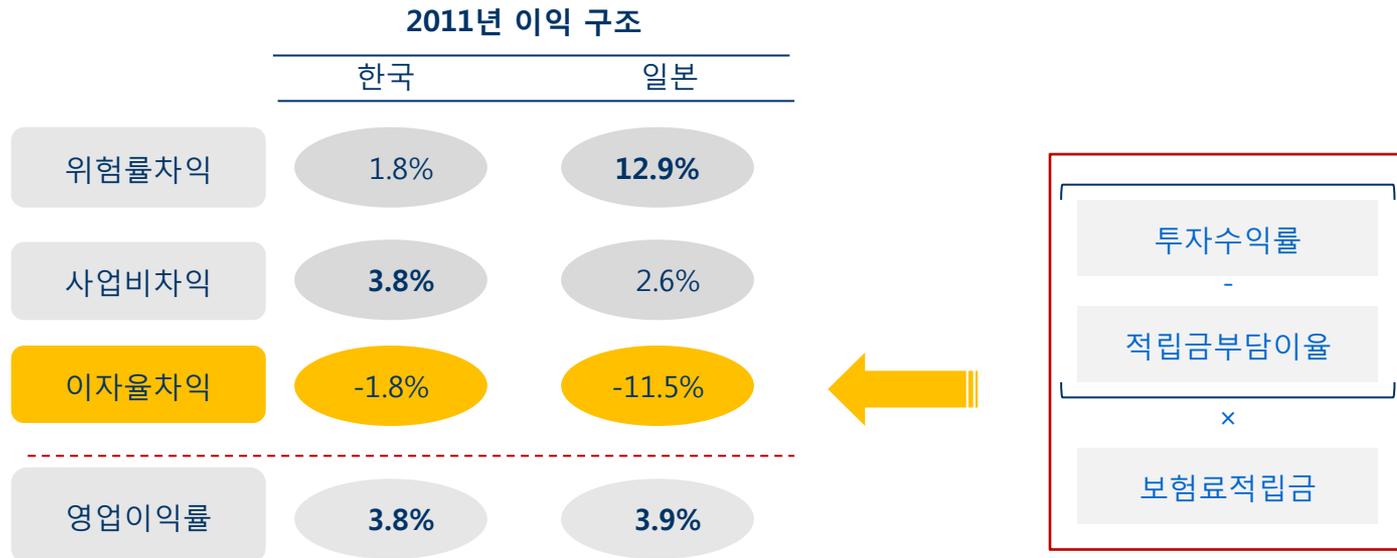
2011년 이익 구성

보험영업	3.4	79.1%
위험률차	1.1	<u>25.6%</u>
사업비차	2.3	<u>53.5%</u>
투자영업	0.8	18.6%
이자율차	(1.1)	<u>(25.6%)</u>
투자수익 @5.3%	14.9	
이자비용 @5.7%	(16.0)	
자본계정투자수익	2.0	46.5%
당기손익	4.3	100.0%

자료 : 김석영 외(2014), 조재린(2012)

2.3.1. 이익구조 해외 비교

- 이차역마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접근
 - 일본은 위험률차익 중심, 한국은 사업비차익 중심 이익 구조
 - 위험률차익 이익 구조 전환은 가격자유화에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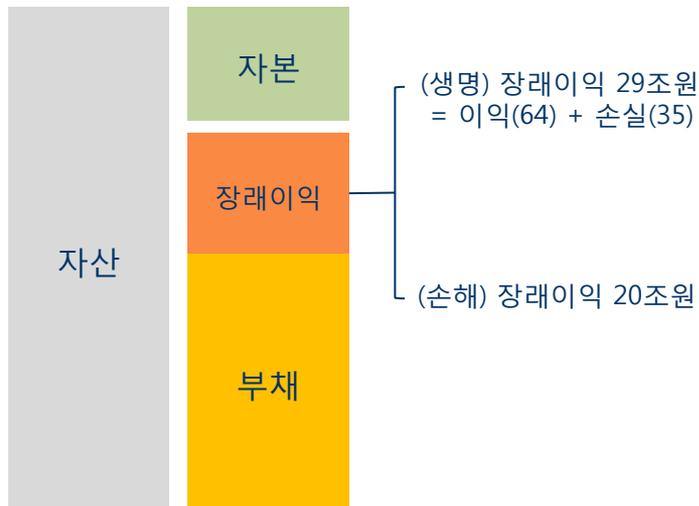


주 : 1. 수입보험료 대비 비율
 2. 일본은 아사히생명(Ashai Life) 사례
 자료 : 조재린(2013), 김해식(2013)

2.3.2. 내재가치 해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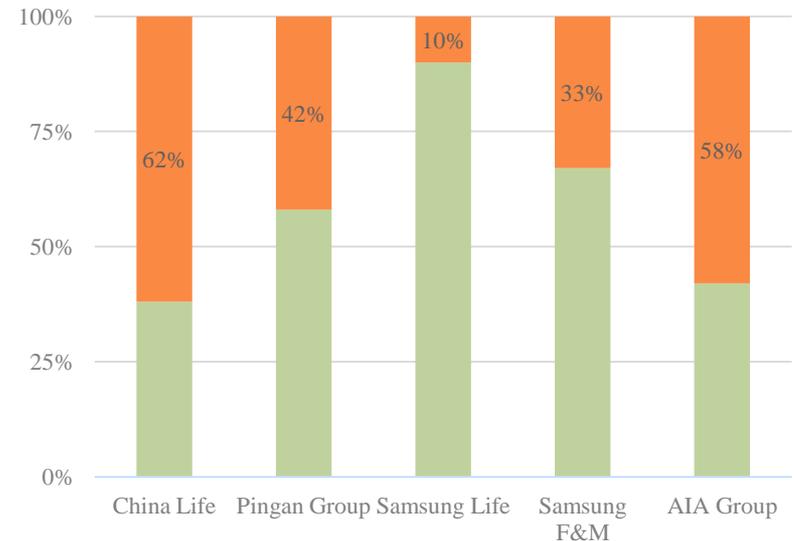
- 장래 이차역마진은 보유계약에서 기대되는 장래이익을 훼손
 - 생명보험은 유배당/금리확정형 계약에서 35조원의 장래손실 예상
 - 이차역마진은 보험회사가 감당해야 할 유산(legacy)

보험회사 부채적정성평가에 기초한 기업가치



자료 : 조재린·김해식(2014)

보험회사 순자산가치와 내재가치(VIF) 구성



자료 : JP Morgan(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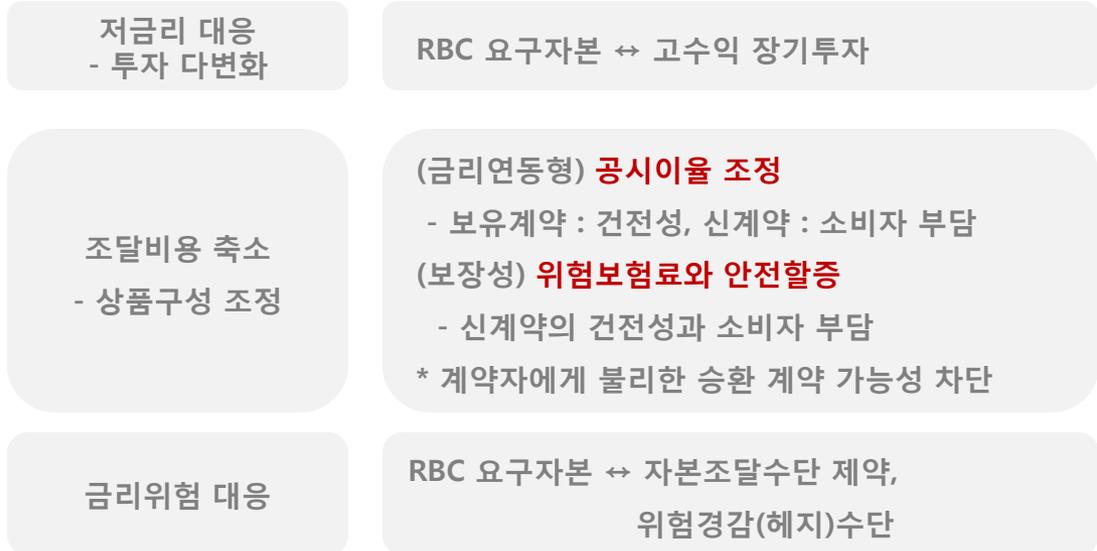
3. 가격자유화

- 이차역마진 사례는 보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중적 태도를 노출
 - 건전성(가격하한)과 소비자보호(가격상한) : 경쟁 제한
 - 가격경쟁 대신 채널다변화 통한 판매경쟁 유도 : 사업비 억제 효과

투자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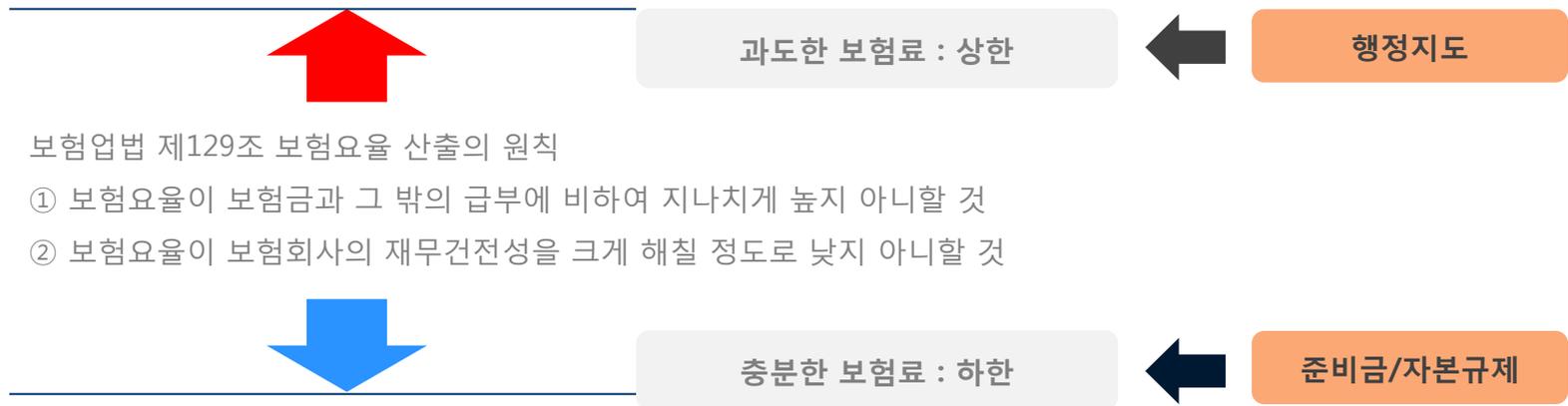


이차역마진 대응



3.1. 경쟁제한 부작용을 함께 고려

- 외형적인 가격자유화가 아니라 감독자 태도가 중요
 - 요율규제형태는 수익성과 상관관계 낮아 (Barth & Feldhaus, 1999)
 - 과도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선언적으로 접근할 필요



-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의심 하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
 - 보험회사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통해 의심을 해소할 필요

4. 건전성 강화 로드맵

- 국제기준은 “시가에 기초한 자본충분성평가(지급여력평가)” 요구
 - 요구자본 산출 시 위험계수 신뢰수준 상향
 - 가용자본 산출 시 부채(준비금)를 시가평가
 - * 시가평가로 준비금 과부족(장래이익 또는 장래손실)을 표시

- 규제강화 영향을 흡수할 시간은 3~4년의 기간
 - 지급여력평가 강화 (2013~2016년)
 - 요구자본 증가로 산업평균 RBC비율 70%p 내외 하락 예상
 - IFRS 부채시가평가와 지급여력평가 연계 (2018년)
 - 산업 전체적으로 35조원 장래손실을 가용자본에 반영해야

4.1.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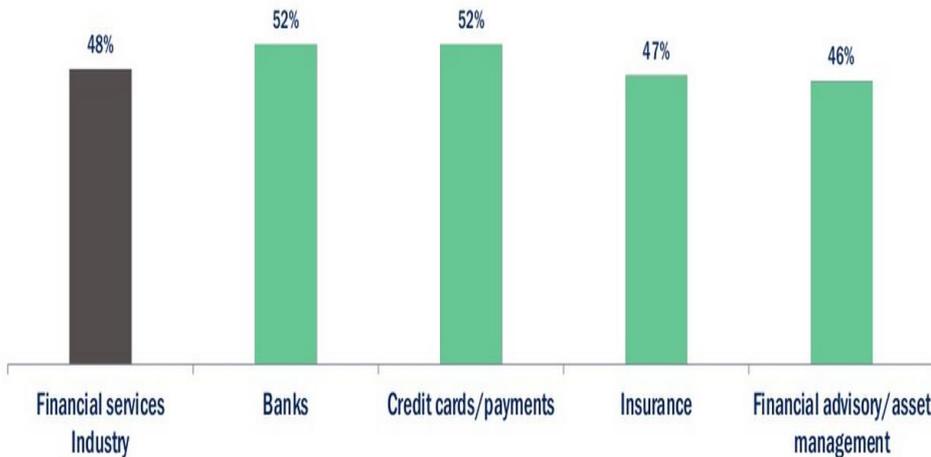
-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로드맵은 미래 규제방향을 제시
 - 2012년 RBC 요구자본 상향 중심의 강화플랜 발표
 - * 2013년 IMF 금융시장안정성평가(FSAP)
 - 2014년 3월 정성평가(ORSA)와 IFRS 연계를 추가한 로드맵 시안
 - 2014년 7월 로드맵 확정, 발표

-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로드맵 수립 과정은 블랙박스
 - 로드맵 그대로 시행 시 상당수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미달로 평가
 - 실행 과정의 장애를 극복할 대응수단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

5. 소비자 신뢰 제고

- 금융당국의 대안은 영업행위규제 강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 소비자공시 등 영업행위규제 강화
 - 판매채널 다변화로 소비자 선택 폭 확대

금융기관 신뢰도 순위



자료 : 2014 Edelman Trust Barometer

한국 금융기관 신뢰도 순위

1. 은행
2. 우체국
3. 보험
4. 농협
5. 금융투자
6. 저축은행

자료 : 보험연구원 소비자설문조사

5.1. Sold, not Bought

-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약점인 “복잡성과 설득에 의한 구매”에 주목
 - 유일한 경쟁 요소인 영업분야 집중이 신뢰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 유니버설뱅크의 유럽 : 은행과 보험의 신뢰도 역전



신뢰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설계사	31	28	28	29	29	30	30	31	31
정치인	32	32	32	32	32	32	32	32	32

자료 : 이태열(2014) 재인용. 원전은 GFK(2014), Trust in Professions 2014

5.2. 소비자 중심에 주목

- 소비자 이해도가 높을수록 신뢰도도 높음 (Douglas, 2012)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
 - 상품공시의 내용과 전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 신뢰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배제된 데서 주로 발생
 -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양산
 - 판매채널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불완전 판매의 양날의 칼
- 금융당국 주도의 영업행위규제만으로는 한계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자율규제로 보완할 필요

6. 결론

- 21세기 보험산업에 21세기 감독 인프라 필요
 - 금융위기는 경영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과정을 중시하는 감독철학의 변화를 촉발

- 규제 강화는 금융회사 투명성, 즉 의사결정과 위험관리 과정에 초점
 - 그러나 투명성 요구를 담은 규제강화플랜의 마련은 여전히 블랙박스

- 보험회사는 유일한 경쟁 요소인 영업분야에서 무한경쟁 중
 - 가격자유화로 보험회사 자율 경쟁과 건전성 제고를 유인할 필요
 - 보험회사도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시장 신뢰 높여야

참고 문헌

- 금융위원회(2014),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 금융위원회(2013),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2014),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김홍범(2007), 금융규제감독의 경과와 개선과제, 금융연구, 21, 한국금융연구원
- 이순재·김재현(2014),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규제·감독 연구 리뷰, 보험학회지, 99, 보험학회.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2014),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이태열(2014),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2014),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CEO Report, 보험연구원.
- 조재린·김해식(2014),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보험연구원.
- 조재린·김해식·김석영(2014),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조재린(2012), 저금리 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 금융위원회 정책세미나.
- Barth, M. M. and Feldhaus, W.(1999), "Does Rate Regulation Alter Underwriting Risk?," Journal of Insurance Issues, 22(1).
- Douglas(2012), "What Do They Know, Anyway? Consumer Understanding of Life Insurance," LIMRA
- JP Morgan(2013), "China Insurance," Asia Pacific Equity Research
- Kim, H.(2013), "Korea's Financial Industry and Capital Markets at a Crossroads,"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감사합니다.

발표자 : 김해식 연구위원(haeskim@kiri.or.kr)